

한국과 영국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비교연구: PIAAC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김수혜**

초 록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 OECD국가들은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며 비고용상태에 있는 청년 니트족(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감소를 주요한 도전과제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니트족 유입의 영향요인과 제 요인 간 구조적 관계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성인역량 성취도 평가인 PIAAC 데이터를 활용하여 니트족 유입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고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니트족 유입의 유의미한 경로는 '성별/본인 교육수준 -> 근로경험-> 니트'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영국에서 니트족 유입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층이 직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영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가능성은 인지적 역량 및 본인의 교육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었으며 부모 교육수준의 간접적인 영향력 또한 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과 다르게 한국 청년층의 인지적 역량 및 본인 교육수준과 니트족 유입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평생학습 준비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 평생학습 준비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한국 청년층의 평생학습 준비도가 본인의 교육수준을 매개하는 효과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평생학습 역량 격차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청년 니트, PIAAC, 인지적 역량, 평생학습 준비도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4944).

** 고려대학교 사회통합교육연구소 연구교수, lemontree845@gmail.com

I. 서 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은 청소년들의 성인기 진입 과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목도되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애주기 경로이다. 개인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 안정적인 일자로나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면 심신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기 쉽고, 거시적 관점에서 이는 청년층의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OECD 다수의 국가에서 청년실업률 급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5년 주요 20개국은 청년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책을 모색하였다(OECD, 2015).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저숙련 청년층, 청년 니트족, 비공식 부문 종사자 청년층의 비율을 15%까지 줄이겠다는 공동의 목표가 상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진척 사항을 OECD 국제 성인역량평가(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등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진단하고 국가 간 비교 결과를 공유하는 중이다.

한국은 2015년 11월 ‘OECD 국가 인적역량 진단보고서’에서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니트족(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감소를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하였다(김문희, 2016). 영국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니트족은 문자 그대로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며 고용상태도 아닌 16세 이상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으나, 청년 고용 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청년 취업 실태를 나타내는 지표로도 적극 활용되는 추세이다(김기현, 2017; OECD, 2015). 이는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참여 현황을 나타내는 실업률과 고용률만으로는 청년층의 일자리 획득 과정의 불안정성을 적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비롯된다(채창균 외, 2008; 황수경, 2010). 고등교육의 양적팽창으로 고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니트족은 청년 고용문제 관련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는 중이다. 이에 국내 니트족 관련 연구는 노동시장으로 진입과정이 구조적으로 지체되기 쉬운 사회문화적 맥락에 기반하여 고학력 니트족 문제를 조망한다(남재량, 김세움, 2013; 정현상, 2017). 한국은 소위 일류대에 진학하기 위한 학업경쟁에서 대입 재수생이 양산되며, 지위획득 과정 또한 치열한 경쟁으로 점철되어 청년층이 더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위해 일정기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나 시험공부로 비경제활동 상황에 처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 청년층이 니트족으로 유입되는 과정은 니트족이 최초로 개념화 되고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등장한 영국과 그 특성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구조적 관점에서 양국의 정규교육 참여율의 차이를 살펴봤을 때도 쉽게 예측되는 바 이다(표 1 참조). 영국을 비롯하여 청년층 니트 문제와 관련 국제연구에서 저학력 취약계층일수록 니트족에 유입될 위험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과 반대로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주를 이룬다(김기현, 2017; 남재량, 김세움, 2013; 정은진, 김기현, 2018).

표 1
한국과 영국의 후기중등교육 취학을 및 대학진학을 현황

국가	한국	영국
후기중등교육 취학률	96%	86%
고등교육 진학률	69%	50%

자료: 한국(통계청, 2017) 영국(통계청, 2017)

OECD의 PIAAC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과 영국의 청년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제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수행중인 PIAAC은 국제성취도 평가로서 성인역량을 직접 측정하고 결과에 대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제공한다(OECD, 2015). 국제성취도 평가 자료로서 PIAAC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본 연구는 한국과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주목한 근본적인 이유는 니트족을 최초로 정의한 영국의 경우 이를 청년층의 기회구조의 제약과 사회적 배제의 문제로 간주하여 관련 학술 및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Bynner & Parsons, 2002; Russell, Simmons & Thompson, 2011; Thompson, 2017). 이에 본 연구는 니트족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사회 통합적 시각에서 청년 니트족의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이를 보다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법을 강구 중인 영국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니트족 영향요인과 제 요인 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확고한 영국과의 실증적 비교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니트족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과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 경로

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PIAAC이 측정한 인지적 역량과 더불어 비인지적 영역에서 21세기 역량으로 노동시장 성패에 영향을 수 있는 평생학습 준비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니트족 유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후, 제 요인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모형은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 간 선형관계를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엄정하게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Kline, 2015). 한국과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니트기가 관측되기 쉬운 개인적 배경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한국과 영국 청년층(16-34세)의 니트족 유입 관련 유의미한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한국과 영국에서 인지적(수리력) 및 비인지적 역량(평생학습 준비도)의 니트족 유입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과 영국 청년층(25-34세)의 니트족 제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한국과 영국의 청년층이 니트족으로 유입되는 경로에서 인지적(수리력) 및 비인지적 역량(평생학습 준비도)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개관

1. 청년 니트의 개념과 동향

영국에서는 일찍이 16-17세 청소년들이 대학교육 또는 직업교육 참여나 노동시장 진입과 같이 전통적인 성인기 이행 경로에서 이탈하는 상황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 (Status ZeRo)’라 정의하였다(Rees et al., 1996). Status ZeRo 상태의 청소년을 개인의 학교중도 탈락이나 실업문제로 간주하기보다 이들이 직면하는 구조적 불평등과 열악

한 환경에 주목하며 대응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노동당 블레어 정권 내각 사회적 배제 위원회(Social Exclusion Unit: SEU)의 보고서에서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며 비고용상태(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에 처한 16-18세 청소년을 인구통계학상 니트족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니트'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영국에서는 후기 중등교육에 진학하지 않은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EU 국가를 중심으로 청년 니트족이 배태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보다 넓은 연령대를 지칭하게 되었다(Eurofound, 2012). 구체적으로 EU의 경제기구인 European Commission은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참여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비활동상태에 있는 15-29세 청년층을 니트족으로 간주하고 인구통계학의 추이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EU 국가에서는 Europe 2020 개발 전략의 주요 지표로서 니트족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을 위시한 제도적 대응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Eurofound, 2012).

EU 지역을 포함한 다수의 OECD 국가에서도 니트족 현황은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진입 관련 문제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탐색되고 있다(박미희, 2017; Carcillo & Königs, 2015). 관련 연구에 따르면 2007-2008 글로벌 금융위기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급등하였으며 청년 비경제활동화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고용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지표로 니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니트족은 청년층의 비활동성을 미취학 및 미취업 상태로 측정함으로써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OECD는 청년 니트의 문제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교육과 고용의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겪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 이에 각 국가에서 실증적 접근을 통해 니트족 현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정의와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제공된다(OECD, 2018). 구체적으로 OECD 정의에 따르면 니트족은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15-29세 청년층을 일컫는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OECD는 각 국가의 니트족 동향을 분석하여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대다수의 국가에서 니트족 비율이 2007년 13.5%에서 2015년 14.6%로 증가하는 국제적 동향을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OECD 비교분석

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07-2015년 사이 니트족 비율이 18.5%에서 18.0%로 소폭 하락하였지만 니트족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이다. 특히 아래 그림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42.5%로 OECD 평균 16.5%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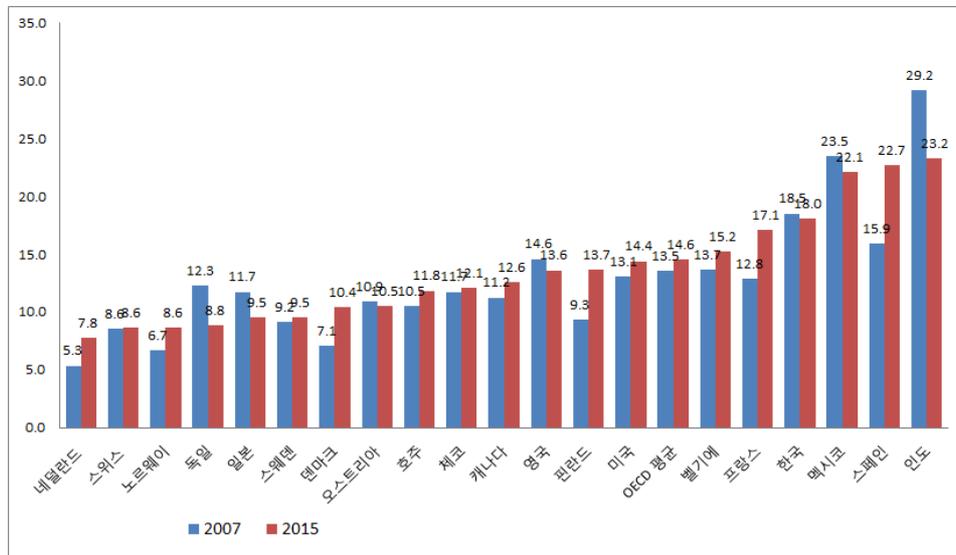


그림 1. OECD 국가 청년 니트족 비율 추이(자료:OECD 2016b)

이처럼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매우 높은 한국에서 니트족은 청년층의 고용문제와 직결되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김기현, 2017; 남재량, 김세움, 2013; 윤혜준 외, 2017; 정은진, 김기현, 2018). 특히 니트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에 포함되지 않는 비형식 교육(예: 학원 및 인터넷 강의 수강)에 참여하는 취업준비생, 진학준비생 또한 비경제활동 청년층으로 추산되는 까닭에 OECD 니트 추정치의 제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윤혜준 외, 2017). 한국의 사회문화 맥락을 반영하였을 때, 국내의 연구들은 취업 및 입시를 준비중인 청년층을 니트족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른다는 점에서 니트족 연령층을 29세-34세로 높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김기현, 2017; 김종욱, 2017; 남재량, 김세움, 2013). 비록 청년 니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나 공식적인 통계

지표는 국내에서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김기현, 2017; 윤혜준 외, 2017), 최근 연구들은 니트족의 특성과 유형을 한국 사회 맥락에서 탐색하려는 학술적 노력을 다음과 같이 지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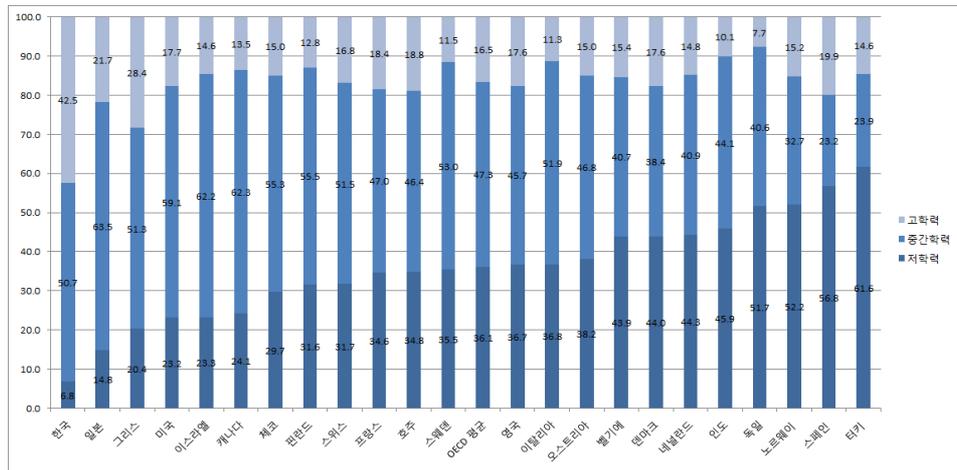


그림 2.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니트 학력 수준(자료: OECD 2016b)

김기현(2017)은 한국노동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럽연합과 국내의 연구를 바탕으로 니트족 유형을 취업준비형, 진학준비형, 돌봄가사형, 휴식포기형, 질병장애형으로 범주화하여 그 비율을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15-19세 청소년의 경우 진학준비형 비율이 높은 반면에 20-24세 청년층의 경우 휴식포기형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5-29세의 경우 취업준비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미, 박가열과 정연순(2010)은 한국의 취약한 진로교육 시스템 문제에 천착하여 청년 니트족의 유형을 내성적 위축형 꿈꾸는 프리터형, 진로 미숙형, 수험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접근을 통하여 모든 유형별 청년 니트족이 공통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진로 탐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소년기 진로교육 부재 또한 니트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니트족의 특성과 그 배경을 규명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널리 수행 중이며, 이를 다음 절에서 청년 니트 유입의 영향요인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청년 니트의 유입 영향요인

청년 니트 관련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영향요인을 탐색하고 제 요인의 개념 및 조작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 배경변인으로 성별, 연령 및 가정배경의 관련성이 보고되는데,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니트족의 배경변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Carcillo와 Königs(2015)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영국 10대 니트족 비율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25세-29세 청년층의 니트족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별 또한 주요 변인으로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일수록 남성에 비해 니트족에 유입되는 비율이 높았고 가정배경 관련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니트족 비율이 높게 관측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 청년 니트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보다 영국의 맥락에서 Bynner와 Parsons(2002)는 21세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 관련 성별에 따른 성장환경의 상이한 영향력에 주목한 바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택 환경이 열악한 도심(inner city)에 거주했던 남성과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여성이 니트족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게 파악되었다. Yates와 그의 동료들(2011) 또한 영국의 패널조사(BCS70: British Birth Cohort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성별에 따른 가정환경의 조절효과에 주목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포부와 정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발휘하며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을 상승시킨다고 보고하였다. Robson(2008)은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패널 데이터를 종단분석 하여 니트족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연령, 가구소득이 니트 상태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영국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니트족에 유입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소득분위에 따른 차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일군의 학자들은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도 니트족 청소년의 다수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사회문화적 자원이 불충분한 영국 노동계층 출신임을 밝히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니트가 되는 현상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의 표상임을 주장한다(Russell, Simmons & Thompson, 2011; Thompson, 2017).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배경에 따른 니트족 유입 가능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김기현(2017)은 한국노동패널 자료와 2016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통해 가

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니트족이 쉽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남재량 (2006) 또한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을 통해 가정배경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부의 학력이 낮거나 비정규직 및 가족종사자일수록 니트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적 분석에서도 청년 니트족의 개인적 특성으로 취업자나 실업자와 비교했을 때 부모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채창균 외, 2015).

본인의 교육수준과 인지적 역량 또한 니트족 유입 관련 주요 변인으로 거론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연구에서 고학력 청년일수록 니트족 유입 비율이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영국 또한 이와 유사하게 보고된다(Carcillo & Königs, 2015). 니트 현상을 스코틀랜드 맥락에서 탐색한 Furlong(2006)의 연구에서도 니트에 유입되는 비율은 교육경험이 풍부한 집단에서 더 적게 관측되었다. 본인의 낮은 교육성취가 청년 니트 유입에 지대한 영향을 발휘한다는 결과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청년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Bynner & Parsons, 2002). 인지적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학업성취 또한 영국 니트족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중등 의무 교육 마지막 단계에서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GCSE) 결과가 낮은 등급일수록 니트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기타 사회문화적 자원이 결핍된 성장환경이 위협요인으로 GCSE 성취 수준을 낮추기 쉽다고 지적된다(Cadwallader, 2012; Sadler, 2015; Thompson, 2017).

이와는 상반되게 국내 관련 연구에서는 본인의 교육성취가 높을수록 니트족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 한국의 경우 고학력 니트족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 청년층의 니트 비중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종욱, 2017; 남재량 2011; 윤혜준 외, 2017). 구조적 관점에서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상승은 한국 청년층의 니트화를 유발하는 주요 기제로 간주된다(남재량, 김세움, 2013; 정현상, 2017). 다시 말해 고학력 청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 대졸 청년층의 경우 좋은 일자리(decent job)를 획득하기 위해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준비기간을 갖는 니트족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재학 기간 휴학생 비율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 또한 학력 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비노동력화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남재량, 김세움, 2013). 나아가 생애주기 관점에서 한국 청년층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코

호트 분석한 결과, 16-35세 기간 동안 학교-취업-결혼의 경로 중간 니트기를 가진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패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교육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취업준비 비경황 인구인 니트족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이병희 외, 2010).

니트족 유입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의 비인지적 역량과 정서적 안녕 또한 주요한 기제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니트족은 행복지수, 삶의 만족도, 타인에 대한 신뢰감 및 정치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arcillo & Königs, 2015). Bynner와 Parsons(2002)의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 니트족 유입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니트족 청소년의 정의적 영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Goldman-Mellor 등(2016)은 니트족과 비니트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니트족의 정신건강, 소프트 스킬(팀워크, 의사결정,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과 미래전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청년 니트족은 비니트족과 비교했을 때 자존감이 낮고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채창균 외, 2015). 김기현(2017) 또한 심리적 특성 변수로 자아존중감을 청년 니트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삼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니트족이 될 확률이 낮음을 밝혔다.

비인지적 영역 관련 평생학습 준비도(readiness to learn)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된다(Evers, Rush & Berdrow, 1998; Mason, Williams & Cranmer, 2009). 학습준비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스킬로 과거 산업화 사회가 개인의 학력과 다르게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양질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평생학습 역량으로 이해할 수 있다(Cornford, 2002). Heckman과 Rubinstein (2001)는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정규교육을 마친 후에도 직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자기통제(self-regulation) 및 시간관리(time-management) 능력과 동기(motivation)로서 평생학습 준비도를 개념화하였다.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가능한 성인역량 평가도구인 PIAAC 또한 노동시장 관련 주요 역량으로 평생학습 준비도를 인지적 스키펴딩(예: 새로운 자료를 기존의 지식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 학습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모색, 문제해결 능력으로 조작화하였으며(Smith et

al., 2014), 이에 평생학습 준비도 관련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먼저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Watson(2010)은 스코틀랜드의 니트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성인기에 접어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평생학습 역량을 길러주는 것과 관련 학습준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찬가지로 Pullman과 Finnie(2018)의 연구에서도 PIAAC 데이터를 활용하여 캐나다 온타리오주 니트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평생학습 준비도를 주요 변인으로 삼아 니트족과 비니트족의 역량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니트족의 문제가 장기화된 청년 실업문제와 함께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참여 경험 또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EU Labour Force Surveys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EU 국가 니트족 절반이 넘는 비율(52%)이 근로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Eurofound, 2012). Carcillo와 Königs(2015)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OECD 국가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 니트 관측기가 거의 없다고 밝혔으며, 반대로 관측 초기 비경제활동이 포착된 청년층은 장기간 니트 상태에 처하기 쉽다고 보고한다. 한국노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김기현(2017)의 연구에서도 취업 및 직업훈련의 경험이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과 영국에서 수행된 니트족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본인의 교육수준과 인지적 역량이 낮을수록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다. 둘째, 21세기 역량인 평생학습 준비도가 높을수록 한국과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은 낮게 관측될 것이다. 셋째, 성별과 본인의 교육수준이 근로경험을 통해 한국과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부모의 교육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과 인지적 역량을 통해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OECD가 주관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이다. 이 조사는 OECD 국가의 인적자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24개국 성인의 기초역량을 성취도 평가를 통해 직접 측정하였으며 직장과 가정에서 이러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다. 2011-13년 첫 시행에서는 24개국의 만 16-65세 성인 16만 6천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후 9개국에서도 추가로 참여하였다(OECD, 2016a). 본 연구는 양적 접근을 통해 한국과 영국의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을 보다 엄정히 비교 분석하기 위해 PIAAC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PIAAC은 과거 성인역량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자 수집된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와 ALL(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 데이터보다 질적으로 뛰어난 국제성취도평가 조사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PIAAC이 성인의 인지적 역량(언어능력, 수리력, 문제해결 능력)을 최신의 측정기법을 활용하여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가능한 자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를 분석자료로 삼았다. 특히 PIAAC은 국제비교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질 관리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참여 국가 간 표본추출, 설문조사원 교육, 설문조사 실행의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의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확보하였다(PIAAC 2013). 전술한 국제비교 연구의 실증자료로서 PIAAC의 장점에 기대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자료 16세-34세 성인(한국: 2324명, 영국: 3016명)을 일차 연구대상으로 삼고 니트족 비율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교육적 맥락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25세-34세 청년층(한국: 1267명, 영국: 1860명)을 대상으로 니트족 위험요인을 탐색하고 제 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PIAAC을 비롯한 국제성취도평가는 각국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복잡한 표집방법(complex sample design)에 따라 조사가 실시된다. PIAAC 조사 또한 모집단으로부터 단순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이 아닌 보다 복잡한 다단계 확률비례표집(multiple-stage probability-sampling)을 활용하여 각국의 16세 이상의 성인인구를 모

집단으로 하는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복합자료(complex sampling survey) 표집 방법은 단순무선표집과 다르게 가중치를 적용해서 표집오차를 추정해야 모수치가 편향되지 않는 값이라 할 수 있다(Pfeffermann, 1993; Oberski, 2014). 각 나라마다 반복표집이 이루어진 횟수와 표집 방법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국제성취도평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교정해야 할 방법론적 엄정성이 요구된다(Rutkowski et al., 2010; Caro & Biecek, 2017). PIAAC Public Use File에는 최종 표본 가중치(full sample weight: SPFWT0)와 반복표본가중치(SPWT1-SPWT10)가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중치를 반영하여 한국과 영국 데이터 표본을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제성취도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계량분석을 수행할 때 성취도 점수 활용 또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PISA와 TIMSS를 비롯한 국제학생성취도 평가와 마찬가지로 PIAAC의 직접평가는 문항반응이론(IRT: Item Response Theory)에 기반하여 문항의 난이도와 개인의 잠재역량을 측정한다(OECD, 2013). IRT 방식을 토대로 PIAAC의 역량점수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활용하여 개인의 능력분포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측정유의값(Plausible Values, PVs)으로 제공된다(OECD, 2013). 상세한 PIAAC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하여 복합자료의 표본오차 추정값과 역량점수의 측정유의값을 포함한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R 3.5 버전 프로그램의 intsvy패키지¹⁾와 lavaan 및 lavaan,survey 패키지²⁾를 이용하였다. 또한 PIAAC의 인지적 역량점수와 종속변수인 니트족 유입여부를 제외한 설명변수의 결측값 처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R 3.5 버전 프로그램의 mice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결측값에 대한 다중대체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변수설정

본 연구의 주요변수는 PIAAC 원자료에서 수집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먼저 종속변수는 니트족 유입여부(그렇다/아니다)를 나타내는 이항 변수로서 조사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 무직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

1)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intsvy/intsvy.pdf>

2)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lavaan,survey/lavaan,survey.pdf>

은 니트족(1)과 비니트족(0)인 더미코딩으로 측정되었다³⁾. 선행연구 탐색을 바탕으로 하여 니트족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연령, 부모 교육수준, 문화자본, 본인 교육수준, 평생학습 준비도, 인지적 역량(수리력), 정치적 효능감, 건강상태, 최근 5년 근로경험을 주요 설명변수로 삼았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남성은 1 여성은 0으로 측정되었으며 연령은 연속변수로서 조사시점 응답자의 나이로 측정되었다. 부모 교육수준은 ‘양친 중 최소 한명이 대졸 이상’-‘양친 중 최소 한명이 고졸 이상’-‘양친 모두 고졸 미만’의 순서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문화자본은 부르디외가 정의한 객체화된 문화자본(objective cultural capital)의 유형 중 하나인 문학작품을 조작화하여(Bourdieu, 1986), 설문문항에서 ‘15세 가정 내 보유한 도서의 숫자’의 응답결과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본인 교육수준은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에 따라 8단계의 교육체제 이수연한을 ‘1) 초등교육 이수 또는 미만 -> 2) 중등교육 이수 -> 3) 후기 중등교육 이수 -> 4) 중등 후 비고등교육 이수 -> 5) 전문대학위 취득 -> 6) 학사학위 취득 -> 7) 석사학위 취득 -> 8) 박사학위 취득’의 순서형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평생학습 준비도(readiness to learn)는 PIAAC 원자료에서 제공된 학습전략 관련 5점 척도로 측정된 6개의 문항(‘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생활에 연관시킴’, ‘새롭게 배우는 것을 좋아함’,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사전지식과 연관시킴’, ‘어려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함’, ‘다른 아이디어들을 합치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기 좋아함’, ‘이해가 되지 않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찾고자함’)을 요인분석을 통해 원자료가 제공한 복합지수를 연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투입하였으며(OECD, 2013),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6개의 관측지표로 투입하였다. 인지적 역량은 PIAAC 성취도 평가에서 수리력(numeracy)을 측정된 10개의 유의값(Plausible Values)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PIAAC 수리력은 “현대 사회 여러 복잡한 생활 속에서 수학적 요구에 참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수리적인 정보와 아이디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 해석, 소통하는 능력”으로 개념화되며 수학적 계산이나 지식보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수리적 내용과 정보에 능숙하게 잘 반응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10개의 유의값으로 측정한다(OECD, 2013). PIAAC

3) 한국 데이터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원자료에서 비형식교육에 참여중인 니트족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표본의 사례수가 0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료에서 측정유의값은 500점 만점의 표준화 점수로 제공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과 해석의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측정단위를 변환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은 청년층의 사회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와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니트족의 주요 변인으로 거론된다(Carcillo & Königs, 2015). PIAAC 설문조사에서 정치효능감은 ‘정부가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의 진술문에 대한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로서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진술문에 응답한 값이 클수록 강한 부정(strongly disagree)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이는 곧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측정하였다. 최근 5년간 근로경험은 ‘지난 5년간 유급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 일한적이 없다(0)와 있다(1)로 응답한 결과를 더미코딩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설문문항인 ‘귀하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는 일반적으로 어떠하십니까?’에 대해 5점 척도(excellent-very good-good-fair-poor)로 응답한 결과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코딩하여 값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분석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먼저 빈도분석을 활용하여 연령집단에 따른 한국과 영국 청년 니트족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에서 처음 니트족을 정의한 영국의 범주화가 한국사회 맥락에 적용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25-34세 청년 니트족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항으로 구성된 범주형 변수일 때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니트족 유입여부(1=니트족, 0=비니트족) 또한 이항 명목변수로서 ‘비니트족’ 대비 ‘니트족’이 발생할 확률은 아래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

$$\ln\left(\frac{P_{\text{니트족}}}{P_{\text{비니트족}}}\right) = \beta_0 + \beta_1 * X_1 + \dots + \beta_p * X_p$$

이항 로짓 회귀분석의 회귀계수 β_i 의 승산비 $\text{EXP}(\beta_i)$ 는 종속변수의 승산에 대한 변

화배수로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승산에 대한 변화 백분율은 $100(\text{EXP}(\beta_i - 1))$ 로 산출된다(홍세희, 2005).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과 영국에서 니트족 유입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한 후 본 연구에서는 주요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접근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엄정하게 확인하였다. 이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경로분석을 추가하여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평생학습 준비도와 인지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니트족 유입 여부는 이항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분석모형은 가중최소제곱 모수추정 방식(Weighted Least Square Parameter Estimator: WLSMV)을 통해 모수값을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중최소제곱 모수추정방식은 종속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범주형 혹은 순서형 변수의 모수를 추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일컬어진다(Muthen & Muthen, 2012)⁴⁾.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또한 가중최소제곱 모수추정 방식을 활용하여 니트족 유입의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OECD(2015)는 니트족(NEET)을 ‘정규교육 및 직업훈련도 받지 않으며 노동시장에도 참여하지 않는’ 15세-29세의 청년층으로 정의한다. 니트족을 최초로 정의한 영국에서 16세는 학업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 진입 혹은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니트족 유입의 시작점으로 간주한다(Thompson, 2017; Tate & Greatbatch, 2017).

4) R 프로그램 lavaan패키지에서 가중최소제곱 모수추정은 대각가중최소제곱법(Diagonally Weighted Least Squares, DWLS)으로 구현되며 강건한 표준오차와 평균 및 분산값을 계산하기 위해 전체 가중치 행렬을 사용한다(Rosseel, 2012).

아울러 니트족 비율이 최근 대졸층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국제적 동향(Carcillo & Königs, 2015)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PIAAC 데이터에서 해당 연령집단인 16-34세를 대상으로 니트족 유입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였다. 아래 표 2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니트족으로 분류되는 24세 미만 한국 청소년의 비율은 영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게 관측되었다. 반면에 대졸 청년층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는 30-34세 니트족 비율은 상대적으로 영국보다 높게 포착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니트족 관련 최신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경우 대졸 니트족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중욱, 2017; 남재량, 2011; 윤혜준 외,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을 주요 설명변인으로 투입하여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니트족 위험요인을 먼저 탐색하였다. 이후 한국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층의 고용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인지적 및 비인지적 영역에서의 성인역량(수리력, 평생학습준비도)의 직간접적 효과를 파악하고자 2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에 투입한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은 아래 표 3-1과 표 3-2에 제시하였다.

표 2
한국과 영국 연령별 니트족 비율

연령	니트족 여부	한국 사례수 (%)	영국 사례수 (%)
16-19세	아니다	568(99.8%)	437(95.6%)
	그렇다	1(.2%)	20(4.4%)
20-24세	아니다	472(95.2%)	593(82.1%)
	그렇다	24(4.8%)	129(17.9%)
25-29세	아니다	549(91.0%)	679(81.3%)
	그렇다	54(9.0%)	156(18.7%)
30-34세	아니다	532(81.1%)	862(86.0%)
	그렇다	124(18.9%)	140(14.0%)

표 3-1

연구모형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한국 표본)

양적변인 (연속변수)	사례수 ⁵⁾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2617234	16	34	25.23	5.60
부모 교육수준	12468369	1	3	2.11	.731
문화자본	12544892	1	6	3.37	1.22
본인 교육수준	12564950	1	8	3.83	1.47
평생학습 준비도	12479639	-1.23	5.00	1.39	.88
정치적 효능감	12542956	1	5	3.23	1.21
건강상태	12556626	1	5	2.97	1.01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1)	12556626	.28	1.00	.69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2)	12556626	.24	1.05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3)	12556626	.19	1.02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4)	12556626	.23	.99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5)	12556626	.26	.97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6)	12556626	.23	1.00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7)	12556626	.25	1.00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8)	12556626	.25	.97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9)	12556626	.25	1.03	.70	.09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10)	12556626	.21	.99	.70	.09
질적변인(더미변수)	사례수	비율	코딩값		
성별_남성	5930100	47%	1= 남성, 0= 여성		
성별_여성	6687134	53%			
근로경험(최근 5년)_있다	3676662	62%	1=유경험, 0=무경험		
근로경험(최근 5년)_없다	2253438	25%			

5) 가중치적용

표 3-2

연구모형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영국 표본)

양적변인 (연속변수)	사례수 ⁶⁾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13634270	16	34	25.01	5.36
부모 교육수준	10502694	1	3	2.24	.67
문화자본	13277001	1	6	3.34	1.45
본인 교육수준	13314899	1	9	4.44	2.75
평생학습 준비도	13353386	-.97	5.00	2.21	1.01
정치적 효능감	13199160	1	5	2.65	1.18
건강상태	13364749	1	5	3.85	.98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1)	13373141	.10	1.09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2)	13373141	.12	1.10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3)	13373141	.16	1.09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4)	13373141	.12	1.04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5)	13373141	.09	1.05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6)	13373141	.16	1.01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7)	13373141	.08	1.03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8)	13373141	.07	1.08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9)	13373141	.13	1.02	.65	.13
인지적 역량(수리력측정유의값10)	13373141	.15	1.09	.655	.13
질적변인(더미변수)	사례수	비율	코딩값		
성별_남성	5590051	41%	1= 남성, 0= 여성		
성별_여성	8044219	59%			
근로경험(최근 5년)_있다	9238116	76%	1=유경험, 0=무경험		
근로경험(최근 5년)_없다	2917300	16%			

6) 가중치적용

2. 추리통계

1) 니트족 유입의 영향요인 탐색

아래 표 4는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한국과 영국 16-34세 청년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연령과 니트족 유입 가능성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국제적으로 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대 청소년에 비해 20·30대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가능성이 더 높게 파악되었다. 한편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남성일 경우 한국과 영국 모두 니트족일 가능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16-34세 남성 니트족 유입 확률은 여성의 .17배(=exp(-1.77)) 수준에 머물렀고 영국의 경우 남성의 니트족 유입 확률은 여성의 .33(=exp(-1.09))배 수준에 그쳤다. 가정배경 관련 부모의 교육수준과 문화자본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만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두 나라에서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니트족에 유입될 가능성이 약 .66배(=exp(-0.42))이며 영국 또한 유사한 수준인 .61배(=exp(-0.4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은 영국 청년층에서만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exp(-0.23)), 이는 첫 번째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한국 청년층의 본인 교육수준과 니트족 유입 가능성은 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상술한 결과는 영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이 본인과 부모의 학력이 낮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은 본인의 학력과 다소 무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국			영국		
	b	exp(b)	b,se	b	exp(b)	b,se
상수항	-3.34**	0.04	1.12	2.98**	20.18	1.03
연령	0.21***	1.23	0.02	0.14***	1.15	0.02
성별(1=남성)	-1.77***	0.17	0.31	-1.09***	0.33	0.23

	한국			영국		
	b	exp(b)	b,se	b	exp(b)	b,se
부모 교육수준	-0.42**	0.66	0.17	-0.49*	0.61	0.23
문화자본	-0.01	0.99	0.10	0.09	1.10	0.10
본인 교육수준	0.10	1.11	0.10	-0.23***	0.80	0.06
평생학습 준비도	-0.34**	0.71	0.12	-0.28	0.76	0.15
인지적 역량(수리력)	-1.34	0.32	1.43	-4.75***	0.01	1.09
정치적 효능감	-0.10	0.90	0.08	-0.17	0.84	0.11
건강상태	-0.21	0.81	0.13	-0.45**	0.64	0.13
근로경험(1=최근5년)	-2.18***	0.11	0.34	-1.79***	0.17	0.27
2 Log Likelihood	4141635.65			3648622.90		
Cox & Snell R square	.14			.19		
Nagelkerke R square	.34			.41		

*** $p < .001$, ** $p < .01$, * $p < .05$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평생학습 준비도와 인지적 역량은 한국과 영국의 니트족 유입에 상반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국 청년층의 평생학습 준비도가 높을수록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았지만, 영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가능성에는 부적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이 한국에서만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인지적 역량의 관련성은 영국 청년층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한국의 경우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첫 번째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역량인 정치효능감은 두 나라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건강상태는 한국과 영국 16-34세 청년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과 부적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결과는 영국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반면 근로경험은 한국과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술한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한국과 영국의 니트족의 경우 노동시장으로 초기진입이 어려운 여성이나 초기진입에 실패한 취업 취약계층이 겪는 사회구조적 문

제임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영국의 니트족의 개인적 특성은 다소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영국의 니트족은 인지적 역량이 부족하고 건강상태 문제를 겪는 청년층으로서 사회경제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국내연구에서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니트족은 인지적 역량이나 교육수준이 결코 낮지 않은 고학력 집단일 개연성이 있으며 학업 및 취업 유예의 경향성이 짙다는 특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만 비인지적 역량인 평생학습 준비도가 높을수록 니트족 유입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 한국 청년의 경우 사회심리적 자원의 보유 정도와 니트족 유입의 관련성이 적지 않음을 추론할 수 있다.

2)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 간 구조적 관계

한국과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 간 이론적 관계를 탐색하기 전 확인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아래 표 5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두 국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한국	.989	.991	.047
영국	.989	.991	.047

한국과 영국 청년층 니트족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확인된 주요 영향요인의 직간접효과는 다음과 같았다(표 6 참조). 앞서 수행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영국 모두 성별(남성), 최근 5년 동안 근로경험에 따라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여성이고 근로경험이 없는 청년층일수록 니트족에 유입될 위험이 두 국가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성별은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설정된 근로경험을 매개하여 한국과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 여부에 유의미

한 간접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청년 니트족의 문제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취업취약 계층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남재량, 김세움, 2013; Carcillo & Königs, 2015).

표 6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직접효과	한국		영국	
	b	s.e	b	s.e
성별(남성) → 니트	-0.864***	0.097	-0.32***	0.072
근로경험(최근 5년) → 니트	-1.328***	0.098	-1.241***	0.08
평생학습 준비도 → 니트	-0.185°	0.085	0.022	0.064
인지적 역량 → 니트	-0.002	0.001	-0.003**	0.001
본인 교육수준 → 니트	-0.097	0.067	-0.346***	0.052
부모 교육수준 → 평생학습 준비도	0.068°	0.032	-0.014	0.033
본인 교육수준 → 평생학습 준비도	0.313***	0.029	0.38***	0.023
부모 교육수준 → 인지적 역량	2.806***	1.409	7.345***	1.596
성별 → 인지적 역량	4.282°	2.077	15.143***	2.177
본인 교육수준 → 인지적 역량	17.788***	0.83	23.013***	1.014
부모 교육수준 → 본인 교육수준	0.441***	0.044	0.809***	0.041
본인 교육수준 → 근로경험	0.029**	0.011	0.076***	0.009
성별 → 근로경험	0.086***	0.022	0.093***	0.018
간접효과				
부모 교육수준 → 평생학습 준비도 → 니트	-0.013	0.009	0	0.001
본인 교육수준 → 평생학습 준비도 → 니트	-0.058°	0.027	0.009	0.024
부모 교육수준 → 인지적 역량 → 니트	-0.004	0.004	-0.021**	0.008
본인 교육수준 → 인지적 역량 → 니트	-0.027	0.023	-0.066**	0.019
성별 → 인지적 역량 → 니트	-0.006	0.006	-0.044**	0.014
부모 교육수준 → 본인 교육수준 → 니트	-0.043	0.03	-0.28***	0.045
본인 교육수준 → 근로경험 → 니트	-0.039**	0.015	-0.094***	0.012
성별 → 근로경험 → 니트	-0.115***	0.030	-0.116***	0.025

	한국	영국
R square		
니트	0.355	0.40
본인 교육수준	0.096	0.247
근로경험(최근 5년)	0.032	0.104
학습준비도	0.239	0.317
인지적 역량	0.276	0.379

*** $p < .001$, ** $p < .01$, * $p < .05$

보다 세밀한 관점에서 한국과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 영향요인 간 직간접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한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여부에는 평생학습 준비도의 직접 및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관측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생학습 준비도가 높은 한국 청년층의 경우 니트족 유입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초기교육 이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려는 의지와 역량이 뛰어난 청년일수록 니트 상태에 처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청년층의 평생학습 준비도는 부모와 본인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본인 교육수준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본인의 교육수준과 니트족 유입 여부 간 직접적인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본인의 교육수준이 평생학습 준비도를 통하여 니트족 유입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다. 아울러 본인의 교육수준은 평생학습 준비도와 함께 근로경험을 매개로도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년층의 경우 인지적 역량이나 교육수준 자체가 낮아 니트족에 유입될 가능성보다 미취업상태가 장기화되거나 노동시장으로 진입 경험이 없어 직업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일수록 니트족이 되기 쉬움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한국과 다르게 영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여부에는 평생학습 준비도의 직간접적인 효과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인지적 역량과 본인 교육수준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역량은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 본인의 교육수준의 간접적인 효과 또한 매개하여 영국 청년층의 니트족 유입 가능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여성, 본인 및 부모의 교육수준과 인지적 역량이 낮을 경우 그 자체로도 니트족에 유입되기 쉽지만 제 위험요인 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통해서도 니트족 유입 경로가 형성됨을 추측해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본인의 교육수준과 인지적 역량을 통해 영국 청년 니트족 유입 여부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본 연구의 네 번째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로서, 그간 논의된 것과 같이 영국의 니트족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취약계층이 직면하는 교육 및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의 총체임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다(Thompson, 2017; Yates et al., 2011).

V. 논 의

본 연구는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문제와 관련 한국과 영국의 니트족 특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제성인역량 성취도 평가인 PIAAC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결과 및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기술통계 분석 결과, 한국과 영국 모두 16-24세 코호트보다 30-34세 코호트에서 정규교육 또는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도 참여하지 않는 니트족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이 높을수록 니트족에 유입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술한 결과는 새롭게 인식되는 생애주기 발달단계로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영국 니트족을 규정한 Bynner (2005)의 학술적 담론과 그 궤를 함께 한다. Arnett(2000, 2004)가 최초로 제안한 개념으로 성인진입기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팽창과 기술진보로 인하여 청년층이 괜찮은 직업을 얻기까지 필연적으로 준비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생애주기로 이해할 수 있다. 대졸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지난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청년 니트족의 개인적 특성을 영국과 비교하였다.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한국과 영국 두 국가에서 여성이거나 근로경험이 없을 경우에 니트족에 유입되기 쉬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세밀하게 탐색한 결과 여성과 저학력 청년층일 경우 최근 5년간 일자리 경험이 없어 니트족에 유입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니트족이 개인의 역량부족이나 참여동기 결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층이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한다(최용환, 2015; Furlong, 2006; Russell, Simmons & Thompson, 2011; Thompson, 2017).

그러나 한국의 경우 영국과 다르게 니트족의 인지적 역량이나 본인의 교육수준이 결코 뒤떨어지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니트족 유입 경로에 가정배경의 간접적인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영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니트족은 기회구조 제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당면하는 문제라기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청년층 고용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급변하는 사회 속 노동시장에서 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덕목인 평생학습 준비도가 한국 청년층이 니트족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유효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한국 청년층의 평생학습 역량은 본인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 평생학습 준비도가 학력의 영향력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니트족 유입에 매개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에 따라 평생학습 준비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이와 관련 Rubenson(1998)은 부르디외의 재생산론에 입각하여 학습 준비도가 일종의 아비투스(habitus)로서 초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와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평생학습 참여 및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 자원 또한 초기 생애 가정환경에 따라 형성되어 이후 교육과 일자리 경험을 통해 개발되기 쉽다는 것이다(Boudard & Rubenson, 2004).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접근을 통해 평생학습 준비도 이외의 청년 니트족의 사회심리적 자원이 어떻게 형성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

정에서 그 효과가 사회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향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국제성취도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영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니트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의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계량적 방법을 통해 니트 유입여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니트족과 비니트족을 이해하는 데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향후 니트족에 유입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니트족 상태에 머무는 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적 차원에서 니트족이 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더욱 엄정하게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탐색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영국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국내 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유형에 따른 니트족 진입 영향요인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후 수행되는 연구에서는 고학력 청년층을 대상으로 니트족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선행연구의 제 유형에 따라 이를 논의하는 것도 한국 니트족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족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및 노동시장 관련 구조적 변인들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을 직시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여 니트족 비율의 추이를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현 (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패널 워킹페이퍼.
- 김문희 (2016). OECD 인적역량 전략(Skills Strategy) 관련 동향. *The HRD Review*, 19(1), 86-98.
- 김종욱 (2017). 최근 청년층 니트 (NEET)의 특징과 변화. *노동리뷰*, 97-110.
- 남재량 (2011). 최근 청년 니트의 현황과 추이. *노동리뷰*, 29-40.
- 남재량, 김세움 (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 (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박미희 (2017). OECD 국가의 청년니트 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17(3), 1-44.
-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 (2017).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ssue Brief.
- 이로미, 박가열, 정연순 (2010).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에 관한 질적 연구. *진로교육 연구*, 23(1), 153-175.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은진, 김기현 (2018).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유형과 정책성과에 관한 OECD 국가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9(1), 117-143. doi:10.14816/sky.2018.29.1.117
- 정현상 (2017). 청년층 (25~34세) 학력별 고용률 변화 국제비교. *노동리뷰*, 65-67.
- 채창균, 민주홍, 양정승, 정지운 (2015).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The HRD Review*, 18(6), 6-25.
- 채창균, 오호영, 정재호, 김기현, 남기곤 (2008). **유희 청년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최용환 (2015).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NEET)' 유입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한국 청소년연구*, 26(4), 85-115. doi:10.14816/sky.2015.26.4.85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____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황수경 (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33(3), 89-127.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doi: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udard, E., & Rubenson, K. (2003). Revisiting major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adult education with a direct measure of literacy skill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3), 265-281. doi:10.1016/j.ijer.2004.04.007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Capital*. New York: Greenwood Press.
- Bynner, J., & Parsons, S. (2002). Social exclusion and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2), 289-309. doi:10.1006/jvbe.2001.1868
- Bynner, J. (2005). Rethinking the youth phase of the life-course: The case for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8*(4), 367-384. doi:10.1080/13676260500431628
- Cadwallader, S. (2012). Is the English Baccalaureate the most appropriate academic core? Subject choice and attainment at GCSE and A-level. Centre for Education Research and Policy. doi=10.1.1.831.7000&rep=rep1&type=pdf.
- Carcillo, S., & Königs, S.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Working paper. doi:10.2139/ssrn.2573655
- Caro, D. H., & Biecek, P. (2017). intsvy: An R package for analysing International large-scale assessment data.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81*(1), 1-44. doi:10.18637/jss.v081.i07
- Cornford, I. R. (2002). Learning-to-learn strategies as a basis for effective lifelong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1*(4), 357-368. doi:10.1080/02601370210141020
- Evers, F. T., Rush, J. C., & Berdrow, I. (1998). *The bases of competence. skills*

- for lifelong learning and employabi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Furlong, A. (2006). Not a very NEET solution: Representing problematic labour market transitions among early school-leaver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0(3), 553-569. doi:10.1177/0950017006067001
- Heckman, J. J., & Rubinstein, Y. (2001). The importance of noncognitive skills: Lessons from the GED testing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45-149. doi:10.1257/aer.91.2.145
- Goldman-Mellor, S., Caspi, A., Arseneault, L., Ajala, N., Ambler, A., Danese, A. et al. (2016). Committed to work but vulnerable: Self-perceptions and mental health in NEET 18-year olds from a contemporary British cohor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2), 196-203. doi:10.1111/jcpp.12459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Mason, G., Williams, G., & Cranmer, S. (2009). Employability skills initiatives in higher education: What effects do they have on graduate labour market outcomes? *Education Economics*, 17(1), 1-30. doi:10.1080/09645290802028315
- Muthen, L. K., & Muthen, B. O. (2012). *Mplus Version 7 user's guide*. Los Angeles: Muthen & Muthen.
- Oberski, D. (2014). lavaan. survey: An R package for complex survey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57(1), 1-27.
- OECD (2013). *Technical report of the survey of adult skills (PIAAC)*.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15). *The G20 Skills Strategy for developing and using skills for the 21st century*. OECD Working paper.
- OECD (2016a).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s Skills*.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23078731
- OECD (2016b). *OECD Employment Outlook 2016*.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19991266
- OECD (2017). *OECD Education at Glance 2017*. Paris: OECD Publishing. doi:10.1787/19991487

- OECD (2018).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Accessed on 05 September 2018)
- Pfeffermann, D. (1993). The role of sampling weights when modeling survey data. *International Statistical Review/Revue Internationale de Statistique*, 317-337.
- Pullman, A., & Finnie, R. (2018). Skill and Social Inequality Among Ontario's NEET Youth. Education Policy Research Initiative.
- Rees, G., Williamson, H., & Istance, D. (1996). 'Status Zero': a study of jobless school-leavers in South Wales.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11(2), 219-235.
- Robson, K. (2008, February). Becoming NEET in Europe: A comparison of predictors and later-life outcomes. In Global Network on Inequality Mini-Conference (Vol. 22).
- Rosseel, Y. (2012). lavaan: An R package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8(2), 1-36.
- Rubenson, K. (1998). Adults' readiness to learn: Questioning lifelong learning for all.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Retrieved from <https://newprairiepress.org/aerc/1998/papers/45/>
- Russell, L., Simmons, R., & Thompson, R. (2011). Ordinary lives: an ethnographic study of young people attending Entry to Employment programmes.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4(5), 477-499. doi:10.1080/13639080.2011.573773
- Rutkowski, L., Gonzalez, E., Joncas, M., & von Davier, M. (2010). International large-scale assessment data: Issues in secondary analysis and reporting. *Educational Researcher*, 39(2), 142-151. doi:10.3102/0013189X10363170
- Smith, M. C., Rose, A. D., Ross-Gordon, J., & Smith, T. J. (2014). Adults' readiness to learn as a predictor of literacy skills. Retrieved from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1bb74b8e4b0139570ddf020/t/54da7802e4b08c6b90107b4f/1423603714198/Smith_Rose_Ross-Gordon_Smith_PIAAC.pdf.
- Tate, S., & Greatbatch, D. (2017). Alternative provision: Effective practice and post 16 Transition. Department for Education, UK.
- Thompson, R. (2011). Individualisation and social exclusion: The case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Oxford Review of Education*, 37(6), 785-802. doi:10.1080/03054985.2011.636507

Watson, C. (2010). Educational policy in Scotland: inclusion and the control society.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Politics of Education*, 31(1), 93-104. doi:10.1080/01596300903465443

Yates, S., Harris, A., Sabates, R., & Staff, J. (2011). Early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fractured transitions: A study of entry into 'NEET' status in the UK. *Journal of Social Policy*, 40(3), 513-534. doi:10.1017/S0047279410000656

ABSTRACT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in the UK and South Korea: Comparative evidence from the PIAAC

Kim, Suehye*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of 2008, OECD countries have faced the challenge of how to reduce the number of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hereafter referred to as NEE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factors are related to the differences which exist between NEETs in both Korea and the UK. Using the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my research elucidated comparative evidence on the empirical association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with a probability of becoming a NEET. A common finding is that female or low educated young people are likely not to have had a paid job for 5 years, which leads to NEET status for both Korean and British young people. Howev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numeracy skills are not risk factors of NEETs in South Korea; in stark contrast to the U.K, British young people from disadvantaged social backgrounds are at risk of falling into NEET status, whereas this tendency is not observed among Korean NEETs. The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shows that the readiness to learn amongst Korean young people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ducational attainment and NEET status, implying a gap of readiness to learn within conventional schooling in South Korea.

Key Words: Youth NEET, PIAAC, numeracy, readiness to learn

투고일: 2018. 9. 6, 심사일: 2018. 11. 9, 심사완료일: 2018. 11. 22

* Center for Social Cohesion Education, Korea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